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개발사업서 어촌·산촌 예산 분리 '수산 전남' 지원는다

이정현 대표 당정회의서 조정

어촌개발 850억 해수부가 집행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18일 긴급당정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해오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과 관련, 내년부터 이 예산에서 어촌과 산촌 개발사업 예산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촌과 산촌의 개발사업을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직접 관장하게 돼 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어촌이 많은 전남과 경남 등에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게 돼 호남 예산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표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8일 저녁 김광립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한 기재부·해수부 주요 간부와 도시락을 먹으며 긴급당정회의를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산촌 개발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의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전담 집행하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년도 전체 예산 8723억원 중 농촌개발사업에 7881억원, 어촌개발사업에 850억원, 산촌개발사업에 150억원 규모로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농촌개발사업예산은 농식품부, 어촌개발사업예산은 해수부, 산촌개발사업예산은 산림청이 각각 편성·집행·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의 경우 계정을 분리할 시간이 부족, 해수부는 농식품부 계정 지역특별회계 내에서 분임재무관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바다에 인접한 읍·면으로 구성되고, 수산업 경제권이 형성된 울릉·통영·거제·여수·완도·진도 등 10개 시·군은 해수부가 전담 개발토록 해 바다와 어촌의 특성에 맞는 해양 관점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지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인비 '골든 슬램'... 한국 종합 8위

〈올림픽 금메달+커리어 그랜드슬램〉



리우 올림픽 오늘 폐막

광주·전남 선수·임원들

금9 은3 동9 메달 레이스 이끌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2일 오전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한다. 광주·전남 출신 스포츠 스타들도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이며 무더위에 지치고 경제난에 힘겨워한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됐다.

〈관련기사 3·18·19면〉

한국 선수단은 폐막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9번째 금메달을 선물,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경쟁국들 성적에 따라 한국의 종합성적 10위 이내 달성 여부는 남아있지만 목표로 했던 금메달 수(10개)는 채우지 못할 처지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베이징(2008년·금메달 13개·7위)·런던(2012년·금메달 13개·5위) 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10·10' 달성을 노렸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유도·배드민턴·레슬링 등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메달 레이스에 차질이

2016 리우올림픽 메달 순위
21일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43	36	37	116
2	영국	27	22	17	66
3	중국	25	18	26	69
4	러시아	17	17	19	53
5	독일	17	10	14	41
6	일본	12	8	21	41
7	프랑스	9	17	14	40
8	한국	9	3	9	21
9	호주	8	11	10	29
10	이탈리아	8	11	7	26

※ 2012 런던올림픽 한국성적 5위(금 13, 은 8, 동 7)

연말뉴스

빛어졌다. 대회 기간,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펼친 광주·전남 선수, 임원들도 적지 않았다. 양궁에서는 광주 여궁사 2명의 손끝에서 여자양궁 올림픽 단체전 8연패 위업을 일궈냈다.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양궁도 개인·단체전을 모두 휩쓸며 한국 메달 레이스를 이끌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지긋지긋한 폭염 주말 끝난다

두 달 동안 맹위를 떨친 지긋지긋한 폭염이 오는 26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6·7·14면〉

특히 올 여름 광주는 최근 30년 중 폭염일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거문도·초도, 영광, 장성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보성(북내) 37.1도를 최고로 광주(중앙) 37도, 나주 36.5도, 구례 36.4도, 광양 36.1도, 함평(월야) 35.9

도, 곡성 35.8도 등을 기록했다. 22~23일에도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는 26일과 27일 광주의 낮 기온이 각각 32도와 31도까지 떨어지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점차 평년(최저기온 20~23도, 최고기온 28~30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 여름 광주의 폭염일수(33도 이상)는 모두 32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까지 살인더위가 이어졌던 1994년(4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의 열대야 일수는 모두 25일로 1994년(37일)과 2010년(34일), 2013년(31일)에 이어 최소 역대 네 번째로 열대야가 많았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경민기자 kki@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색깔있는 클래식음악제 필요”

첼리스트 정명화 특별 인터뷰

“클래식은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국내외 문화도시들이 클래식 음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시민의 문화지수를 높이고 도시를 알리는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72·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사진) 평창 대관령 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은 최근 본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도 색깔있는 클래식 음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예술감독은 최근 방문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제1회 마린스키 극동페스티벌’ 출발을 사례로 들었다. “군항(軍港)으로 잘 알려진 블라디보스톡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평창이 음악제를 개최하는 이유



도 음악제를 통해 극동의 문화하브, 한국의 ‘아스펜’(세계적인 음악메카로 떠오른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으로 변신하기 위해서예요. 강원

도는 접근성이나 먹거리, 문화자원 등이 풍부한 광주와 비교하면 거의 무(無)에서 음악제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광주에 고품격의 클래식 음악제가 창설된다면 광주 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남도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한편 정 예술감독은 동생 바이올리니스트 경화, 지휘자 명훈과 함께 ‘정 트리오’로 불리며 동생 경화외 함께 ‘평창 대관령 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이끌어 오고 있다.
/서울=송기동기자song@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명화형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